

전남도 농가 행복시책 2639억 투입

재해보험료 경감 등 35개 시책 농업용드론·무인헬기 지원 확대 청년농업인 사업제 참여 부담 경감

전남도가 2022년 한해 농가 경영안정과 행복한 농업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농가에 도움이 될 35개 신규 및 행복시책을 시행한다. 총사업비는 2639억원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본인 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췄다. 농업인의 비용 부담 경감은 물론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1석 2조 효과가 기대된다.

한파·이상저온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예 분야 재해 예방시설인 방풍·방조망, 열풍 방상팬 등 20억원을 지원한다. 또 아열대 과수, 기능성 채소 등 신소득 원예 특화단지

를 20ha 규모로 조성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자부담을 30%로 하향, 진입 장벽을 낮췄다.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는 지난해보다 사업비를 두 배 확대하고,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육묘장, 농업용드론, 무인헬기 등도 지난해보다 2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행복바우처 카드도 자부담금을 도비로 전액 보조한다. 폐비닐 수거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환경친화적 농자재로서 자연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멀칭제(5억원)도 지원한다. 영농 중 발생하는 탄소 저감을 위해 저탄소 토양환경개선편제(30억원)를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소비트렌드 변화로 새로운 식품산업으로 각광받는 가정간편식 제품(HMR) 개발을 위해 생산 인프라 구축비를 업체당 최대 1억원을 보조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보탬이 될 친환경 중경제초기와 친환경과일의 안정적 생산을 뒷받침할 친환경 해충방제기 구입도 지원한다. 또 축산농가에는 조사료(벼짚) 스팀 가공장비를 지원해 조사료의 영양가를 높이고, 출하돼지 체중 측정 영상장비도 지원해 양돈농가의 근로부담을 줄여준다

이밖에 반려견 동물등록비도 마리당 3만원까지 지원해 유실·유기동물들을 예방하고,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도 마리당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달라진 제도와 시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의 경영안정과 행복한 농업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뒀다”며 “농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당 사업을 적극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농업분야 달라진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농업정책과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청소년 심터 4곳에 겨울용품 전달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 최근 목포청소년남자자킴터 등 전남지역 청소년 심터 4개 기관을 찾아 겨울철 잠바, 바지, 내의 등 의류와 여성용품, 빵 등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 사용된 물품은 양미란 재단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자발적으로 후원한 금액으로 마련했다.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제공>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전방위 홍보

전남도, 청정 관광자원 담은 BI 3종·홍보영상 3편 제작

전남도는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대내외 널리 알리기 위해 전남의 매력적인 관광 자원이 담긴 BI(Brand Identity)와 홍보영상의 제작을 마치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

BI는 영상·광고용, 홍보물품(굿즈)용, 행사·공문서용 등 3종으로 구분해 개발했다. 최근 도민·공무원 835명을 대상으로 BI 3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영상·광고용이 1위(43%), 홍보용품(굿즈)이 2위(38%), 행사·공문서용이 3위(19%)를 차지했다. BI는 전남의 특화자원인 해양, 생태, 음식, 체험을 아이러니화하면서 청정·힐링의 관광평소상을 상징적으로 담아내 관심을 끌었다.

특히 영상·광고용 BI는 빨강과 파랑 두가지 컬러의 라인을 이용해 해양관광과 내륙관광을 연출

하고, 시공간 동반성장의 의미를 담아 호응을 얻었다. 홍보물품(굿즈)용 BI는 짧은 층이 선호할 수 있도록 컬러풀하게 개발했으며, 컵, 에코백 등 다양한 굿즈(상품) 제작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수단, 육외광고,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라남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다’라는 주제로 홍보영상 3편을 제작했다.

홍보영상은 ▲전남도의 아름다운 영상과 나레이션이 적절한 조화를 이룬 ‘나레이션’ 편 ▲ ‘Beautiful’ ‘Colorful’ 한 전남을 담은 ‘~ful한 전남’ 편 ▲MZ세대의 일상탈출을 겨냥해 랩과 판소리, 힙합 리듬이 조화를 이뤄 다이나믹한 전남을 보여주는 ‘날 보러와요’ 편으로, 집중도가 높은 40초 영상으로 각각 만들어졌다.

전남도는 홍보영상을 최근 1일 23회 운행하는 KTX 모든 노선의 송출을 시작했고 97개 노선 금호고속 버스와 MZ세대 집합명소인 서울 명동과 강남역 전광판에서 광고를 시작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립도서관 올해 읽어야 할 책 선정 ‘쌀 재난 국가’ 등 4권

전남도립도서관은 독서하는 분위기로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2022년 한해 도민이 읽어야 할 ‘올해의 책’ 4권을 선정했다. 올해의 책 선정은 지역 작가와 교수, 사서교사 등으로 구성된 도서선정위원회와 심사와 온라인 도민투표 결과를 반영했다.

올해의 책은 문학, 비문학, 청소년, 어린이 4개 분야 1권씩이다. 문학 분야는 박남준 시인의 ‘어린 왕자로부터 세드 무비’가 뽑혔다. 풀, 나무, 꽃 등 소소한 것들로부터 큰 울림을 이끌어내고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비문학 분야에선 이철승의 ‘쌀 재난 국가’가 선정됐다. 한반도 고대국가 시대부터 현재까지 쌀 경작 문화권의 불평등 구조 진화과정을 심도 있는 역사 분석을 통해 밝혀내고 있다. 청소년 분야에선 유은실 작가의 ‘순례 주박’을 올렸다. 주인공인 ‘오수림’의 가족들이 순례 주박으로 이사를 와서 겪는 과정을 유쾌하고 즐겁게 묘사해 추천위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어린이 분야의 경우 전수경 작가의 ‘별빛 전자 소년’이 선정됐다. 우주공간과 가상세계라는 독특한 배경에서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면서 별빛 전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렸다.

도립도서관은 올해의 책을 ‘작가와와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범도민 함께 읽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개발공사, 보육시설 크리스마스 선물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철신)가 2000만원의 예산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10곳을 찾아 생필품, 의류용품, 생활가전 등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격려를 통한 위로의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아동 보육시설을 찾아 희망 메시지를 담은 손 편지 카드와 함께 어린이들이 소망했던 산타 선물을 전달해 아이들에게 뜻깊은 크리스마스 추억을 선물했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전남도, 숙취 해소 특효 ‘멸꼴’ 산업화 속도

천연자원연구센터 기업에 기술 이전

전남도의 지역 천연자원을 활용한 R&D 성과들이 바이오 기업과 지역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산하 천연자원연구센터가 멸꼴열매 추출물 관련 특허를 기능성식품 전문기업에 이전에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전남도와 천연자원연구센터는 2019년 코스닥 상장 기능성식품 전문기업인 (주)미래생명자원과 멸꼴열매에서 추출한 간 보호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 기술이전 협약을 했다.

이를 기반으로 (주)미래생명자원은 지난 10월 ‘유태

티헬스 주당간편’이라는 제품명의 숙취해소 음료를 출시, 온라인과 약국체인에서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천연자원연구센터는 일반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해 멸꼴열매 추출물의 알콜성 간보호 효과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인체적용시험을 마치면, 식약처 개별인정형 원료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주)미래생명자원은 제품 개발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도내농가와 계약재배를 체결할 예정이다.

멸꼴은 명나무로 불리는 난대성 냉온성식물로, 전남 남해안 일대에 자생하는 으름덩굴과에 속한 상록덩굴 식물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수산가공·유통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경쟁력 강화 2026년까지 8404억 투입

국내 최대 수산물 생산지인 전남도는 제2차 수산가공·유통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새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수산식품산업법 등 관련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수산물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산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전남 경제를 선도하는 활력 있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제2차 수산가공·유통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수산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8404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

을 세웠다. 현재 연간 2조8000억원 규모의 수산가공·유통소득을 약 60%가량 늘어난 4조5000억원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목표 실현을 위해 전남도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가공·유통 분야별 6대 중점 추진전략과 93개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부문의 사업비 규모는 ▲가공산업 생산 기반 조성 3205억원(18개 사업)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 대응 가공업 고부가가치화 673억원(16개 사업) ▲김·전복·뱅자어 등 10대 주요 품종 집중육성 1451억원(30개 사업) ▲유통과정 위생체계 구축 683억원(6개 사업) ▲유통단계 부가가치 증대 1637억원(5개 사업) ▲신 유통경로 및 수출시장 개척 755억원(18개 사업)이다.

/김형호 기자 khh@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